DOI http://dx.doi.org/10.22912/dgsh.2023..76.143

〈일반논문〉

한국전쟁 발생 전후, 한 석유상의 경험과 기억*

권 오 수 **

〈목차〉

Ⅰ. 머리말
Ⅱ. 29살 청년, 석유 유통업에 뛰어들다
Ⅲ. 유맥(油脈)과 인맥
Ⅳ. 한국전쟁과 그의 전쟁
Ⅴ. 맺음말

[국문초록]

이 글은 반세기 석유 유통업에 종사한 한 석유상이 남긴 자서전을 중심으로 한국전쟁 발생을 전후한 시기 한국 석유사의 한 단면을 미시적으로 살펴본 것이다. 이 자서전에는 그가 석유 유통업에 종사하면서 겪은 경험과 기억이 한국 현대사의 흐름 속에 오롯이 담겨있다. 특히 한국 정부 수립 후 그가 석유업계로 진출하는 과정, 한국전쟁 당시 국내의 석유 유통 상황, 석유 대리점 허가가 취소되고 재기하는 과정 등이 여과 없이 적나라하게 서술되어 있다. 이러한 그의 경험과 기억은 한국전쟁 발생 전후 한국 석유와 관련된 자료와 연구가 상당히 빈약한 상황에서 당시 한국의 석유 유통 상황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정보를 제공해 준다. 그의 자서전은

* 이 논문은 2020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20S1A5B8103485).

** 국립순천대학교 인문학술원 학술연구교수

당시 소자본가가 형성되는 과정의 한 단면을 엿볼 수 있다는 측면에서도 중요한 의미가 있다.

□ 주제어
한국전쟁, 석유상, 석유 유통, 쓰리 시스터즈, 대한석유저장회사

I. 머리말

한국 정부 수립 직후 전국 최연소 석유 대리점 사장이 된 한 청년이 있다. 이름은 진상태, 그의 나이 29살이 되던 해였다. 1949년 미국 스탠다드 바큠 석유회사(Standard Vacuum Oil Company) 한국 지사로부터 경북 지역 판매 허가를 받은 그는 대구에 영남석유상사를 설립하고 석유 유통업을 시작하였다. 1953년 가을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석유대리점 허가가 취소되었으나, 그는 재기하여 삼미상사를 설립하고 1957년 대한석유저장회사(Korea Oil Storage Company, KOSCO) 서울 경기 대리점 운영권을 획득하였다. 이후 그는 남은 반세기 동안 국내 석유 유통업계에 종사하였다.[1)]

진상태는 2001년 『석유인생 반세기』라는 제목으로 자서전을 출간하

1) 진상태는 주유소협회 회장, 한국석유협회 이사장, 한국석유협회 서울·경기 지부장, 한국석유·가스유통협회 부회장 겸 석유사업운영위원장, 한국석유유통협회 이사 등을 역임하였고, 2008년 88세의 나이로 타계하였다. 「초대석: 20년간 문경새재 662번 넘은 85세 진상태 회장」, 『동아일보』 2005년 6월 25일; 「자유성, 688회」, 『영남일보』 2015년 9월 17일자.

였다.[2] 이 자서전에는 그가 석유 유통업에 종사하면서 겪은 경험과 기억이 한국 현대사의 흐름 속에 오롯이 담겨있다. 특히 그의 자서전에는 한국 정부 수립 후 그가 석유 유통업계로 진출하는 과정, 한국전쟁 발생을 전후한 시기 국내의 석유 유통 상황 등이 주변인들과 관계 속에 여과 없이 적나라하게 서술되어 있다. 이러한 그의 경험과 기억은 한국전쟁 발생 전후 한국 석유와 관련된 자료와 연구가 상당히 빈약한 상황에서 당시 한국의 석유 유통 상황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정보를 제공해 주고 있다. 그의 자서전은 당시 소자본가가 형성되는 과정의 한 단면을 엿볼 수 있다는 측면에서도 중요한 의미가 있다.[3]

이 글은 진상태의 자서전 중 한국전쟁 발생을 전후한 시기 내용을 중심으로 한국 석유사의 한 단면을 미시적으로 살펴본 것이다. 다만 그의 경험과 기억을 이해하는 데 있어 몇 가지 환기할 사항이 있다. 우선 진상태의 성공담은 법적 감수성이 상실된 시대의 유산이라는 점이다. 자서전에는 그가 석유 유통업계에 진출하고 석유 대리점을 운영하면서 행한 수많은 로비 활동, 비정상적으로 보이는 영업 방식 등이 영문 이니셜로 등장하는 많은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여과 없이 서술되어 있다. 그러나 이 글에

2) 진상태, 『석유인생 반세기』, 도서출판 영인, 2001.

3) 한국전쟁 발생 전후 한국 석유에 대해서는 자료의 부재로 인해 연구가 거의 진행되지 않고 있다. 다만 한국 정부 수립을 전후한 시기 한국 석유와 관련된 연구는 권오수, 「1945~1949년 미국의 대한석유정책과 한미석유협정 체결」, 동국대학교 대학원 사학과 박사학위논문, 2020; 「미군정기 미군의 석유 운영과 석유배급회사의 활동」, 『역사와교육』 33, 2021; 「1949년 '대한민국 및 대한석유저장회사 간의 협정' 분석」, 『세계역사와 문화연구』 64, 2022 등이 있다. 권오수는 미국 정부와 쓰리 시스터즈 간 긴밀한 관계의 형성 과정을 제2차 세계대전 직후 "미국적 코포라티즘(American corporatism)"의 대외 팽창 과정으로 설명하기도 하였다. Ohsoo Kwon, "Machinations from on High: U.S. Aid Plan and Oil in South Korea," *Diplomatic History*, Vol. 46, No. 1, 2022. 그러나 이상의 연구는 주로 미국의 대한 석유 정책을 중심으로 당시 한국 석유에 대해 접근하고 있어 국내 석유 유통 상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규명하지 못하였다.

서는 그의 성공담에 대한 시비를 현재적 관점에서 논하지 않겠다. 다음으로 대부분의 자서전이 비슷하겠지만, 그의 자서전 역시 온갖 역경을 딛고 일어선 성공담이 자기중심적으로 서술되어 있다는 점이다. 특히 그의 자서전에는 다른 석유상들과 이해관계를 둘러싼 첨예한 갈등 구조가 그를 중심으로 서술되어 있다. 이러한 측면은 당시 석유 유통업에 종사한 이진우의 저서인 『석유유통야사』를 참고하여 보완하였다.[4)]

Ⅱ. 29살 청년, 석유 유통업에 뛰어들다

진상태는 1920년 충북 영동군 황간면에서 정미소를 운영하는 유복한 집안의 외동 맏아들로 "축복을 받고" 태어났다. 충북 황간 공립보통학교(현 황간초등학교)와 김천 고등보통학교(현 김천고등학교)를 졸업한 그는 일본으로 건너가 도쿄 성북고등보섭학교(1935년 도쿄에 설립된 城北高等補習學校의 오타로 보임)를 졸업하였다. 그는 일본에서 계속 공부를 하고 싶었으나 일제 말기 정세를 불안해 한 아버지의 "성화같은 재촉"에 한국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다. 한국에 돌아온 후 그는 일본 산호물산 충북지점

4) 金用武·吳裕錫, 『人間 石庵』, 文榮社, 1968; 한국석유유통협회, 『석유유통 50년사』, 한국석유유통협회 50년사 편찬팀, 2006; 경북광유, 『경북광유 80년사』, 경북광유, 2007; 이진우, 『석유유통야사』, 에너지미디어, 2015. 이상의 책 중 『人間 石庵』은 경북광유주식회사(현 KK 주식회사) 창립자인 박재관의 일생을 담은 평전이다. 이진우는 일제 말기 조선석유배급주식회사 사원으로 석유업에 발을 디딘 이래, 해방 후 석유배급회사, 대한석유저장회사, 스탠다드 바큠 등에 재직하였고, 중앙석유 주식회사 전무이사를 역임하였다. 『석유유통야사』는 그가 『석유유통협회보』에 「석유야사」라는 제목으로 2008년 3월부터 2009년 10월까지 연재한 총 11편의 글을 모아 출판한 것이다.

에서 지배인으로 일을 하며 해방을 맞이하였다.[5)]

해방 후 진상태는 미군정 지방 기구에서 통역관을 역임하였다. 군내에서 영어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자신을 포함해 세 명밖에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는 영어를 책으로만 배워 회화에 능하지 않았으나, 회화실습의 좋은 기회라고 여기고 분발하였다. 후술하겠지만 통역을 하며 쌓은 영어 실력은 해방이 그에게 준 "엄청난 선물"이었다.[6)]

한국 정부 수립과 함께 진상태는 "국내에 없는 물품으로 이권이 붙는 상품을 취급하여서 소자본으로 대자본을 축적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며 사업을 구상하였다. 그가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된 것은 당시 국내에서 생산되는 물자의 품질이 미군 물자와 비교해 너무 좋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그의 표현에 따르자면 국내에서 생산된 제품은 "실용품이라기보다 실험용품"에 가까울 정도로 품질이 나빴다. 이러 저러한 사업을 고민하던 그는 당시 전량 수입에 의존했던 석유 사업에 흥미를 느끼고 석유대리점을 해 보기로 결심하였다.[7)]

해방 후 미군이 점령한 38선 이남 지역에는 일제가 패망하면서 공사가 중단된 울산정유공장만 있을 뿐, 석유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이 없었다. 당시 사용된 석유 제품은 모두 미군이 들여온 것이었다. 한편, 미군정기 석유 제품은 미군정청의 독립대리기관(Independent Agency)인 석유배급회사가 전담하여 운영하였다. 석유배급회사는 일제강점기 한국에서 영업 활동을 하다가 태평양전쟁 발생과 함께 철수한 스탠다드 바큠 석유회사, 캘리포니아-텍사스 석유회사(California-Texas Oil Company), 로열 더치 쉘 석유회사(Royal Dutch Shell Oil Company)(이하 쓰리 시스터즈)가 공동으로 운영하였다. 당시 귀속 기업체인 조선석유주식회사가 있었으나,

5) 진상태, 『석유인생 반세기』, 9~12쪽.
6) 진상태, 『석유인생 반세기』, 13쪽.
7) 진상태, 『석유인생 반세기』, 14쪽.

석유 운영과 관련된 어떠한 역할도 수행하지 않았다. 미군정은 한국인들에게 조선석유주식회사를 관리하도록 하였으나, 아무런 지원도 하지 않았다. 조선석유주식회사 한국인 관리인은 이 회사의 토지와 건물이 무단으로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만 수행했을 뿐이었다.[8)]

석유배급회사는 일제강점기 석유 판매 시스템을 활용하여 석유 배급망을 구축하였다. 석유배급회사의 당초 계획한 석유 배급망은 태평양전쟁 이전 쓰리 시스터즈와 조선석유주식회사의 판매 조직을 활용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 조직들은 대부분 일본인으로 구성되었기 때문에 해방 직후 일본인들의 철수와 함께 해체되었다. 이에 석유배급회사는 과거 석유회사에 근무했거나 석유 "부판점(판매점)"을 운영했던 사람들을 기용해 각 도에 석유판매조합을 조직하여 석유 배급망을 구축하였다.[9)]

---

8) 스탠다드 바큠은 1933년 뉴저지 스탠다드 석유 회사(Standard Oil Company of New Jersey)와 소코니-바큠 석유 회사(Socony-Vacuum Oil Company)가 아시아 지역 석유 시장을 확보하기 위해 합병한 회사로 당시 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규모가 큰 회사였다. 로열 더치 쉘은 1907년 쉘 운송 무역 회사(Shell Transport and Tradinmg Company)와 로열 더치 석유 회사(Royal Dutch Petroleum Company)가 합병한 석유 회사이다. 쉘 또한 그 규모가 스탠다드 바큠과 비슷할 정도로 규모가 컸다. 캘리포니아-텍사스는 텍사스 회사(Texas Corporation)와 캘리포니아 스탠다드 석유 회사(Standard Oil Company of California)가 1936년 합작 투자로 설립한 회사이다. 캘리포니아-텍사스는 주로 중국에서 활동하였다. 이에 관해서는 Irvine H. Anderson Jr., *The Standard-Vacuum Oil Company and United States East Asian Policy, 1933-1941*,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75와 M. S. Vassiliou, *Historical Dictionary of the Petroleum Industry*, Lanham: The Scarecrow Press, Inc., 2009 참조. 해방 후 스탠다드 바큠, 칼텍스, 쉘의 한국 재진출 과정과 석유배급회사 활동에 대해서는 권오수, 「1945~1949년 미국의 대한석유정책과 한미석유협정 체결」, 40~51쪽 및 「미군정기 미군의 석유 운영과 석유배급회사의 활동」, 333~342쪽 참조. 권오수는 이상 3개 석유회사를 "쓰리 시스터즈"라 칭하였다. 권오수, 「1945-1948년 미군의 대한 석유 정책과 "쓰리 시스터즈(Three Sisters)"」, 『미국사연구』 47, 2018.

9) "Report on the Civilian Petroleum Position in South Korea with Particular Reference to the Calendar Year 1946," Entry A1 1256, Box 23, ,RG 554, NARA(이하

〈표-1〉 미군정기 석유배급조합

지역	조합명	조합장
서울, 경기, 영서 지구	중앙석유배급조합	양규봉
인천, 옹진 지구	인천석유배급조합	박미수, 윤환
충 남	대전석유배급조합	문갑동
	천안석유배급조합	송만일
	조치원석유배급조합	박경하
충 북	충북석유배급조합	김원근, 홍봉희
	제천석유배급조합	한상모
	영동석유배급조합	성득환
전 북	전북석유배급조합(전주)	최종진
	군산석유배급조합	김영상
전 남	전남석유배급조합(광주)	고광표
	목포석유배급조합	손용기
	여수석유배급조합	강선희
경 북	경북석유배급조합(대구)	강치운
	김천석유배급조합	박오득
경 남	경남석유배급조합	이영언

* 이진우, 『석유유통야사』 69쪽; 한국석유유통협회, 『석유유통 50년사』, 99쪽.

석유배급회사는 각 도의 석유배급조합을 통해 민간에 석유를 공급하였다. 즉, 석유배급조합은 석유배급회사의 직영 대리점과 같은 역할을 하였다. 석유배급조합은 또한 해당 지역에 있는 저용량 석유 저장 시설을 공동으로 관리, 운영하는 역할도 수행하였다.[10]

한국 정부 수립 후에도 미군정기 석유 운영 구조는 그대로 이어졌다. 쓰리 시스터즈는 미국 국적의 합자 회사인 대한석유저장회사를 설립하고,

"1946 PDA Report"). 권오수, 「미군정기 미군의 석유 운영과 석유배급회사의 활동」, 334쪽; 이진우, 『석유유통야사』, 60쪽.

10) 권오수, 「1945~1949년 미국의 대한석유정책과 한미석유협정 체결」, 54쪽

1949년 1월 한국 정부, 미국 정부와 석유 협정(이하 「운영 협정」)을 체결하였다. 대한석유저장회사는 이 협정을 통해 한국 정부를 대신해 국내에 수입되는 모든 석유 제품에 대한 운영권을 독점적으로 보장받았다. 석유 배급 체제 또한 미군정기 석유배급조합을 기반으로 한 석유 배급망이 그대로 유지되었다.[11] 즉, 한국에서 석유와 관련된 사업은 "국내에 없는 물품으로 이권이 붙는 상품을 취급"한다는 진상태의 사업 구상에 가장 적합한 것이었다.

1949년 2월경, 진상태는 경북 김천 읍민들이 석유 대리점을 유치하기 위해 진정서까지 제출하였다는 말을 들었다. 그의 자서전에 따르면 당시 경북 지역에는 석유 대리점이 대구에만 있어 지역민들의 불편이 이를 데 없었다고 하였다.[12] 그는 충북 영동에서 석유 대리점을 경영하고 있던 S(당시 영동석유배급조합장 성득환으로 보임)를 만나 자문을 구하기도 하였다. S는 이미 각 도에 기존 대리점이 있어 신규 허가를 얻는 것은 무모한 계획이라고 진상태에게 설명하였다. 그의 부친도 그의 계획을 반대하였다. 그러나 "외고집" 진상태는 김천에 석유 대리점을 유치하기로 결심하였다. 마침 김천은 그가 고등보통학교를 다닌 곳이기도 하였기 때문에 그는 김천에 있던 친구들에게 사업 계획을 설명하고 대리점을 유치할 자금을 빌려 서울로 갔다.

진상태는 우선 상공부를 찾아가 석유 대리점 허가 신청을 하였다. 당

11) 「석유배급요강 임시조치 결정」, 『동아일보』 1949년 2월 4일자; 권오수, 「1945~1949년 미국의 대한석유정책과 한미석유협정 체결」, 105~106쪽.

12) 후술하겠지만 진상태와 각별한 인연이 있었던 스탠다드 바큠 지밴인 샌본이 그에게 석유 대리점 운영을 허가할 당시 일제강점기부터 스탠다드 바큠 소유의 석유 창고를 무보수로 관리해 준 P씨(김천석유배급조합장 박오득으로 보임)가 있었다고 하며 P에게 김천 지역 대리점 운영권을 허가하였다. 진상태, 『석유인생 반세기』 25쪽. 이를 통해 볼 때 당시 김천에는 김천석유배급조합이 있었으나(〈표-1〉 참조), 석유 저장 업무만 수행하고 배급 업무는 하지 않았던 것으로 여겨진다.

시 석유 대리점과 배급 업무는 상공부가 관할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그는 상공부에서 대한석유저장회사가 실질적으로 석유 대리점 허가를 관할하고 있다는 설명만 들을 수 있었다. 평소 친분이 있던 장관, 국회의원, 은사들을 찾아가 상의하였으나 같은 대답만 들을 수 있었다. 1949년 3월, 진상태는 "어떤 일이 있어도 내 주장을 이해시켜야 한다"고 마음을 먹고 당시 의주로에 있었던 대한석유저장회사에 직접 찾아갔다. 그는 외국인 지배인들에게 경북 지도를 펼쳐 놓고 이 지역 석유 배급 상황의 불편함을 호소하며 대리점 허가를 요청하였다. 그러나 그들로부터 9월이 되면 모종의 계획이 발표되고 그때 가서 확답을 주겠다는 답변만 듣고 돌아서야만 했다.[13)]

진상태는 물러서지 않았다. 그는 김천으로 돌아가 관공서는 물론 국회의원을 포함한 읍민의 진정서를 받아 영문으로 번역하여 대한석유저장회사를 다시 찾아갔다. 그러나 대한석유저장회사 외국인 지배인들은 대리점 개설과 관련해 어떠한 언질도 주지 않고 9월이 되어야 고려해 보겠다는 말만 되풀이할 뿐이었다. "9월이라는 비밀은 무엇일까?" 그는 알 수 없었다. 그는 9월까지 대한석유저장회사 외국인들과 장기적으로 접촉하겠다고 마음먹고 그들의 사택을 수시로 방문하는 등 매우 조심스럽게 친분을 쌓아 나갔다. 그는 "9월이라는 비밀"이 무엇인지 궁금하였으나, 석유 대리점에 관한 이야기는 의식적으로 꺼내지 않았다.[14)]

진상태는 스탠다드 바큠 지배인인 샌본(Sanborn)과 특별히 가까워졌다. 샌본은 만난 지 오래되면 일부러 운전사를 보내 그를 찾기까지 하였다. 1949년 초여름 진상태는 9월부터 대한석유저장회사는 저장 업무만 취급하고 3개 회사는 각기 분리되어 판매회사로 독립할 계획이라는 말을 샌

13) 진상태, 『석유인생 반세기』, 17~19쪽.
14) 진상태, 『석유인생 반세기』, 20~21쪽.

본으로부터 들었다.[15)]

"9월이라는 비밀"은 1949년 9월 한국 정부와 대한석유저장회사 간에 체결된 석유 협정(이하 「임대차 협정」)을 비롯해, 「각 석유회사에 대한 한국 정부의 허가 협정」(이하 「허가 협정」, 「1949년 9월 30일 한국 정부 소유 석유에 대한 위탁 협정」(이하 「위탁 협정」), 「한국 및 한국에서 영업하는 각 석유회사 간 외국환에 관한 협정」(이하 「외국환 협정」)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미국 정부와 쓰리 시스터즈가 한국 정부 수립 직후부터 구상한 한국 석유 운영 계획은 쓰리 시스터즈가 한국 정부 소유의 석유 시설을 임대하여 석유를 독점적으로 판매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당시 한국인들의 반발, 특히 국회의 석유 국영화 조치에 대응하여 임시적으로 「운영 협정」을 체결하였던 것이었다. 1949년 1월 「운영 협정」이 체결된 후 한국 정부와 쓰리 시스터즈는 한국 내 사업 행위를 보장받기 위해 미국 정부의 참관 하에 「임대차 협정」을 비롯한 나머지 협정을 체결하기 위한 교섭을 계속 진행하였다. 다만 한국인들의 반발을 피하기 위해 최대한 비밀리에 이 협정을 준비하고 있었다.[16)]

진상태는 그처럼 궁금해하던 "9월이라는 비밀"을 알게 되었다. 그러나 샌본으로부터 대리점 허가를 주겠다는 말은 듣지 못하였다. 진상태는 샌본과 친분을 쌓기 위해 더 노력하였다. 그는 한국 음악을 좋아하던 샌본을 위해 당시 쟁쟁한 명창들을 동원하여 공연을 보여주기도 하며 정성을 다하였다. 8월 중순 드디어 노력의 결실이 보이기 시작했다. 진상태는 샌본으로부터 아직은 발표가 안된 일이니 절대 비밀로 해달라는 당부와 함께

15) 진상태, 『석유인생 반세기』, 20~22쪽.

16) 이상 4개의 석유 협정 체결 과정 및 협정 내용에 대해서는 권오수, 「1945~1949년 미국의 대한석유정책과 한미석유협정 체결」, 117~126쪽 및 「1949년 '대한민국 및 대한석유저장회사 간의 협정' 분석」, 『세계역사와 문화연구』 64, 2022 참조. 한국 정부 수립 후 미국 정부와 쓰리 시스터즈 간 「운영 협정」과 「임대차 협정」 준비 과정에 대해서는 Kwon, "Machinations from on High" 참조.

경북 일대의 스탠다드 바큠 석유 대리점을 맡아 달라는 말을 들었다.[17] 1949년 8월경에 이르면 「임대차 협정」을 비롯한 여타 협정 체결을 위한 교섭이 마무리되는 단계에 있었다. 협정이 체결되기 전 이미 샌본과 진상태는 대리점 계약을 준비했던 것이었다.

샌본으로부터 석유 대리점 운영 허가를 받은 진상태는 "기쁨에 들떠 어린애처럼 흥분하며 연방 땡큐를 연발하였다." 그러나 기쁨도 잠시, 쓰리시스터즈로부터 석유대리점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거액의 은행예금증명서가 있어야 했다. 샌본이 요구한 금액은 약 2천만 원, "현재(2001년)" 20억 원 상당의 금액이었다. 부친의 재산을 다 모아도 그 정도의 자금은 없었다. 문득 그는 김천 천주교 재단에서 여학교를 창립하기 위해 기금을 모은다는 소문을 들은 일이 떠올랐다. 그 길로 그는 김천으로 가서 신부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그가 임시로 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부탁하였다. 이렇게 그는 2천만 원의 은행예금증명서를 마련하였다.[18]

1949년 8월 31일 아침 진상태는 샌본으로부터 내일 일찍 대한석유저장회사 사무실로 와서 대리점 허가 수속을 진행하라는 연락을 받았다. 다만 샌본은 경북 전역을 진상태가 담당하되, 일제강점기부터 스탠다드 바큠 소유의 석유 창고를 무보수로 관리해 준 P(김천석유배급조합장 박오득으로 보임)가 김천 지구의 대리점을 원하니 그 지역은 P에게 양보해 달라고 요구하였다. 진상태는 거절할 이유가 없었다. 9월 1일 마침내 진상태는 예정대로 계약서에 서명하고, 그 당시 최연소인 29세에 석유 대리점 사장이 되었다.[19]

---

17) 진상태, 『석유인생 반세기』, 22~24쪽.

18) 진상태, 『석유인생 반세기』, 24~25쪽.

19) 진상태, 『석유인생 반세기』, 25~26쪽. 「임대차 협정」의 공식적인 서명일이 9월 13일인 점을 볼 때 진상태는 석유 대리점 계약일을 잘못 기억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임대차 협정」은 국문 협정문이 준비되지 않은 채 영문 협정만만으로 9월 6일 서명하였고, 이후 국문 협정문이 준비된 9월 13일 공식적인 서명을 하였다. 권오

Ⅲ. 유맥(油脈)과 인맥

1949년 9월 「임대차 협정」 및 제반 협정이 체결된 후 쓰리 시스터즈는 한국에서 석유와 관련된 모든 운영을 독점하였다. 1949년 9월 석유협정 체제 아래에서 쓰리 시스터즈 각 회사는 경제협조처와 함께 석유 제품 조달 절차를 작성하고 한국에 석유 제품을 공급하였다. 한국으로 공급된 석유 제품들은 대한석유저장회사 저장 창고에 보관되었고, 쓰리 시스터즈 각 회사는 대한석유저장회사로부터 석유 제품을 공급받아 전국 각지에서 자신들과 계약한 석유 대리점을 통해 석유를 배급하였다.[20]

총 36개의 석유 대리점이 쓰리 시스터즈 각 회사와 계약하였다. 석유 대리점들은 외국 석유 회사와 계약을 하였기 때문에 정부의 간섭을 받지 않았다. 쓰리 시스터즈는 석유 대리점들을 임의로 지정하거나 폐쇄하였으며, 한국 정부는 상공부장관이 추후 인가를 해주는 정도였다. 이진우에 따르면 심지어 경무대에서 특정인의 대리점 계약을 부탁해도 통하지 않았다고 하였다. 소매상 또한 대리점이 지정하나, 각 대리점이 속한 석유 회사의 인준을 받아야 했다. 이처럼 당시 쓰리 시스터즈는 대리점으로부터 소매상에 이르기까지 한국의 석유 유통 구조를 독점적으로 장악하였다.[21]

쓰리 시스터즈가 석유 대리점을 임의로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면서 이에 따른 문제점도 발생하였다. 진상태가 스탠다드 바큠 석유 대리점 허가를 받은 사례와 마찬가지로 몇몇 대리점은 선정될 때 지배인과 친분 관계로 결정되는 경우가 있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샌본이었다. 샌본은 진상태 외에도 석유 판매 경험이 없지만, 자신과 친분이 있던 영서지역

수, 「1945~1949년 미국의 대한석유정책과 한미석유협정 체결」, 125~126쪽

20) 권오수, 「1945~1949년 미국의 대한석유정책과 한미석유협정 체결」, 126쪽.

21) 이진우, 『석유유통야사』, 81~82쪽.

〈표-2〉 쓰리 시스터즈 각 회사와 계약한 지역별 대리점[22)]

지역	스탠다드 바큠	칼텍스	쉘	계
서울·경기	조선미유판매(김진원) **대동석유(박기순)**	제일사(양규봉) 조양석유(장응화)	미륭상사(박미수) 삼일사(김형민)	6
충남	충남미유(문갑동)	충남석유(송만일)	충남조개표(박경하)	3
충북	충북미유(홍봉희) 제천미유(한상모, 정우택)	충북석유(김원근)	충북조개표(성득환)	4
전북	전북유업(송주섭)	전북석유(최종진)	대한석유(김영상)	3
전남	전남미유(고광표)	**대동석유(김용남)**	전남석유(손용기) 전남조개표(강선희)	4
경북	**영남석유(진상태)** 김천석유(박오득)	경북광유(박재관)	**경북유업(이근선)**	4
경남	한국미유(이영언)	한미석유(박정관)	경남조개표(진중달)	3
영서	**강서미유(태응선)**	동국실업(윤환)	영목상사(이범래)	3
영동	영동미유(정상갑)	영동석유(박정관)	**동해유업(안승렴)**	3
제주	제주미유(박종실)	홍종언상점(홍종언)	제주조개표(이응후)	3
계	13	11	12	36

* 괄호는 대리점 대표명. 굵은 글씨는 기존에 석유 유통업에 종사하지 않았으나, 「임대차 협정」 체결 후 새롭게 석유 유통업에 진출한 대리점임.
* 이진우, 『석유유통야사』, 71쪽.

의 강서미유, 서울 경기 지역의 대동석유 등에게 대리점을 허가해 주었다. 부산과 인천에서 만대공사라는 하역회사를 경영하였던 대동석유 박기순

22) 『석유유통 50년사』에는 당시 쓰리 시스터즈와 계약한 석유 대리점 총 34개소로 『석유유통야사』와 다르게 작성되어 있다. 우선 경북지역 석유 대리점 중 스탠다스 바큠과 계약한 석유 대리점에 한일미유가 추가로 포함되어 있고, 제주에는 제주미유만 표기되어 있다. 그러나 한일미유는 진상태의 영남석유상사가 허가 취소된 후 기존에 석유 대리점 허가를 받지 못한 석유상과 김천미유가 설립한 회사이다. 또한 당시 쓰리 시스터즈가 1/3씩 공평하게 석유 판매 시장을 나누었다는 측면에서 볼 때, 제주미유 외에 칼테스와 쉘에서도 제주에 석유 대리점이 설립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석유유통야사』에서 소개한 표가 더 정확할 것으로 판

은 샌본과 중국 상하이에서부터 오랫동안 친하게 지낸 사이였다. 쉘에서도 석유 판매 경험이 없던 경북지역의 경북유업과 영동지역의 동해유업에 대리점 허가를 내주었고, 칼텍스도 전남 지역 대동석유공사에 허가권을 주었다.[23] 한국 정부는 석유 대리점 허가 요청에 대한 인준 권한이 있었으나 사실상 무용지물이었다. 진상태의 경우에도 당초 정부에서는 그가 석유 판매 경험이 없다는 이유로 그의 대리점 운영 허가를 반대했다. 그러나 샌본은 진상태의 부친이 정미소를 운영하고 있다는 점을 크게 비약시켜, 마치 진상태가 직접 정미소를 운영하고 석유 발동기를 취급하고 있는 것처럼 정부 관계자를 설득하여 인준을 받아내기도 하였다.[24]

이렇게 석유 유통에 대한 경험도 없이 대리점 허가를 받으려고 한 것은 당시 석유 유통업이 상당히 안정적으로 이윤을 창출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이었다. 당시 석유 유통업은 석유 제품을 경쟁적으로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국내 석유 판매량을 1/3씩 공평하게 나눈 쓰리 시스터즈의 통제 아래 석유 창고에서 제품을 받아 보관했다가 사러 오는 사람들에게 내주기만 하면 되었다. 많은 직원을 고용할 필요가 없어 인건비가 많이 들지 않았고, 유통 마진 또한 좋았다. 게다가 석유는 썩는 물건이 아니어서 재고 부담도 없었다. 단지 석유가 새는 것만 방지하고 관리하면 되는데, 이마저도 석유회사에서 어느 정도는 인정하고 부대 비용에 반영해 주었다. 이진우에 따르면 “이 사업은 [석유]배급조합의 입장에서 보면 땅 짚고 헤엄치기식”이라고 할 정도로 사업성이 좋았다.[25]

기존 석유 판매상들도 「임대차 협정」 체결 이후 쓰리 시스터즈 각 회사로부터 석유 대리점 운영 허가를 받기 위해 노력하였다. 석유 대리점 계약

단된다. 이진우, 『석유유통야사』, 61~64쪽, 114쪽; 진상태, 『석유인생 반세기』, 76쪽.

23) 이진우, 『석유유통야사』, 115~118쪽; 진상태, 『석유인생 반세기』, 29쪽.

24) 진상태, 『석유인생 반세기』, 34쪽.

25) 이진우, 『석유유통야사』, 77~79쪽.

체결은 소규모 석유 판매점이 사업을 확장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었다. 일제강점기부터 대구오일상회를 운영하였던 경북광유 박재관도 쉘과 계약을 성사함으로써 크게 발돋움하게 되었다고 하며 대리점 계약을 맺은 것에 중요한 의미를 두었다. 경남지역 조선미유 이영언은 해방 직후에 당시 스탠다드 바큠 지배인인 휘트먼으로부터 석유 대리점을 허가해 준다는 취지의 각서를 받아 놓기도 했다.[26]

미군정기부터 석유 유통업에 종사했으나 「임대차 협정」 체결 후 대리점 선정 과정에서 실패한 판매상들의 반발 또한 컸다. 이들은 주주총회를 통해 새 대리점의 영업을 차단하고, 기존 대리점을 회복시키자는 결의까지 하였다고 한다. 각 지역마다 대리점 수가 정해져 있어 새롭게 대리점을 개설하려면 기존 대리점의 자리를 인수해야만 했기 때문이었다.[27] 진상태는 대구에 대리점을 개설한 후 대구 경북 지역 소매점 모집을 위해 신문광고를 내는 한편, 소매점과 동업 조건을 상의하여 그들로부터 보증금을 받을 계획까지 세웠다. 그러나 석유 소매점 또한 대부분이 이전부터 석유 유통업을 해 온 대리점의 주주이거나, 그들과 오랫동안 관계를 맺어 온 사이였기 때문에 진상태가 이들과 동업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다. 기존 석유 판매상들은 신규 대리점을 "말살"하기 위해 정부와 교섭하여 경북도청에서 배급 전표를 발행하지 않도록 하기도 하였다.[28]

---

26) 경북광유, 『경북광유 80년사』, 75쪽; 이진우, 『석유유통야사』, 116쪽.

27) 이진우, 『석유유통야사』, 115~118쪽; 진상태, 『석유인생 반세기』, 29쪽, 33쪽. 이진우는 「임대차 협정」 체결 후 이진우를 포함해 출납 2명, 판매과장 1명, 작업관계자 1명 등 총 4명이 석유배급회사에서 스탠다드 바큠으로 스카웃되었다고 한다. 당시 스탠다드 바큠 총지배인은 샌본이었고, 경리 지배인으로 피드칵(F. R. Pidcark)이었다. 이진우, 『석유유통야사』, 64쪽.

28) 진상태, 『석유인생 반세기』, 29쪽, 34쪽. 진상태의 영남석유를 비롯해 샌본과 친분관계로 신규 대리점 허가를 얻은 대동석유, 강서미유는 모두 일찍이 사업을 철수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영업권을 넘겼다. 이진우, 『석유유통야사』, 117쪽. 진상태의 경우 삼미상사란 회사명으로 1957년 대한석유저장회사로부터 대리점 운영권을 다

기존 석유 유통업에 종사했던 석유상들은 이미 미군정기때부터 상당한 유대 관계를 형성하고 있었다. 미군정기 석유배급조합원들은 1946년 12월 임의단체인 대한석유협회(현 한국석유유통협회)를 창립하였다. 대한석유협회는 매달 한두 번씩 서울에 대금결제와 배급 관련 업무로 모임을 가지고 정보를 교환하였다. 12월에는 정기총회를 개최하였는데, 이때는 석유배급회사 직원들도 모두 초청하여 서로 친목을 다졌다.[29] 특히 기존 석유 판매상들은 1949년 1월 「운영 협정」이 체결된 직후 이 협정의 체결에 반대하는 사람들과의 갈등 속에서 유대가 더욱 돈독해진 것으로 여겨진다. 쓰리 시스터즈의 국내 활동과 「운영 협정」 체결에 반대하는 주장은 이미 이 협정의 체결 이전부터 여론을 주도하였다. 1948년 12월 제121차 국회 본회의에서는 석유 국영화를 골자로 한 「석유정제 및 통제에 관한 건의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되기도 하였다.[30] 「운영 협정」 체결 후 이 협정의 체결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당시 석유 판매상들을 "부정 상인" 또는 "반민족적 모리업자"라고 비난하였다. 이에 대해 석유 판매상들은 오히려 그들이 "악질모리상습자와 그의 졸개들"이라며 하며, 자신들은 사명감을 가

시 받았다.

29) 한국석유유통협회, 『석유유통 50년사』, 100쪽. 당시 대한석유협회 초대 회장은 중앙석유배급조합 조합장인 양규봉 제일사 사장이, 부회장은 이영언 한국미유 사장과 김형민 삼일사 사장이 맡았고, 협회 실무는 석유배급회사에 근무하던 윤창구가 맡았다고 한다. 이진우, 『석유유통야사』, 80쪽. 대한석유협회는 1956년 정부로부터 정식으로 법인 인가를 받았다. 이후 한국석유협회, 한국석유·가스유통협회를 거쳐, 현재 한국석유유통협회로 활동하고 있다. 한국석유유통협회 협회사에 대해서는 한국석유유통협회, 『석유유통 50년사』, 147~241쪽 참조. 현재 대한석유협회는 1980년 국내 정유 5사와 한국석유개발공사가 설립한 단체로 이 협회가 발족될 당시, 한국석유협회와 갈등이 일어나기도 하였다. 「石油協 명칭 是非」『경향신문』 1980년 7월 19일자.

30) 「석유정제 및 통제에 관한 건의안」, 『국회속기록(제1회 제121호)』, 1949년 12월 4일. 당시 제헌국회에서 정부에서 제안한 건의안에 대해서는 권오수, 「1945~1949년 미국의 대한석유정책과 한미석유협정 체결」, 83쪽 참조.

지고 원활한 석유 제품의 배급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성명을 발표하기도 하였다.[31)]

「임대차 협정」 체결 후 대리점 영업을 허가받은 신규 석유상들은 자금 조달이 쉽지 않았기 때문에 자본이 부족할 경우 대리점을 운영하는 것이 어려웠다. 석유 대리점은 그달의 할당된 분량을 매월 25일까지 의무적으로 전량 구매해야만 했다. 마감일까지 배급량을 구매하지 못하면 자동으로 계약이 해지되었다.[32)] 대리점에 재고량이 많아 구입량을 줄이고 싶어도 일방적으로 그럴 수 없었다. 또한 미군정기부터 석유배급회사와 석유상 간의 거래는 모두 현금으로 진행되었고, 거래 조건 또한 운송 전에 무조건 현금을 전액 지불해야만 했다. 쓰리 시스터즈는 불안한 한국 경제 상황을 이유로 외상 거래를 허용하지 않았다. 석유배급회사의 회계 사무 조직이 부족하여 석유 제품을 담보로 판매할 시스템도 구축되지 않았다. 여기에 더해 재고와 철도 시설이 부족하여 수송이 지연되어 석유 판매상의 자본 순환이 늦어지기도 하였다. 석유 판매상들이 은행 융자를 받는 것도 쉽지 않았다. 이러한 구조는 한국 정부가 수립된 후에도 그대로 이어졌다.[33)]

진상태는 9월분 배급량을 사야 할 마감일이 임박해 왔으나, 석유 제품을 구매할 자금이 부족했다. 그러나 그에게는 샌본이 있었다. 그는 당시 스탠다드 바큠과 거래하기를 원했던 C 은행에 접촉하여 이를 성사시켜 준

31) 「석유협정에 유감」, 『동아일보』 1949년 2월 6일자; 「성명서」, 『동아일보』, 1949년 2월 18일자; 『경향신문』 1949년 2월 19일자; 『조선중앙일보』 1949년 2월 22일자. 「임대차 협정」 체결 후 석유상들 간의 갈등에 관해서는 권오수, 「1945~1949년 미국의 대한석유정책과 한미석유협정 체결」, 109~110쪽 참조.

32) 진상태, 『석유인생 반세기』, 29쪽, 37쪽.

33) "1946 PDA Report," "Report on the Civilian Petroleum Position in South Korea with Particular Reference to the Calendar Year 1946," Entry A1 1256, Box 23, RG 554, NARA (이하 1947 PDA Report). 미군정기 석유배급회사와 석유배급조합 간의 거래 방식에 관해서는 권오수, 「미군정기 미군의 석유 운영」, 335~336쪽 참조.

다는 조건으로 무담보로 대출을 받아 9월분 매입 마감일을 하루 앞두고 배급량을 전량 구매하였다. 이후 그는 샌본에게 자금 마련 경위를 설명하고 스탠다드 바큠과 C 은행의 예금 거래를 성사시켰다. 몇 달 후 이 대출건은 담보 없이 거액의 대출을 받았다는 이유로 재무부의 승인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생겼다. C 은행에서는 진상태에게 직접 승인을 얻어내도록 종용하였다. 그는 또 인맥을 활용하였다. 여기저기 아는 사람들을 통해 재무부 장관 K(김도연)와 친한 사람을 "탐색"하였다. 진상태는 B 교수가 장관과 대학 동창이자 "대폿술 친구"인 것을 알아내고 그에게 접촉하였다. 1950년 1월 진상태는 B 교수의 집을 직접 찾아가 사정을 간곡히 호소하고, 그에게서 장관을 만나게 해준다는 약속을 받아냈다. 다음 날 진상태는 B 교수와 함께 중앙청 장관실에서 K 장관을 만났다. B 교수는 그에게 은행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자신의 일처럼 간청"하였다. K 장관은 석유 제품 같은 경우 배급품이고 공급이 중단되면 안 되는 특수한 물품이니 예외 취급을 하여 즉시 승인하도록 지시하였다. C 은행이 몇 달 동안 해결하지 못한 것을 그는 단 몇십 분 만에 해결하였다.[34]

진상태는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석유 대리점을 운영하였다. 그러나 기존 석유 배급상들과 마찰, 자본과 경험의 부족 등으로 쉽지만은 않았다. 재고가 많이 남았을 경우, 구입량을 줄이고 싶어도 그럴 수 없었다. 자금이 부족할 경우 대출을 받아 해결하였지만, "옹색"할 경우도 있었다. 그는 이러한 석유 거래 방식을 "그때의 폐단"이라고만 표현하였다.[35]

34) 진상태, 『석유인생 반세기』, 29~31쪽, 35~37쪽.
35) 진상태, 『석유인생 반세기』, 38쪽.

Ⅳ. 한국전쟁과 그의 전쟁

매월 25일은 대한석유저장회사로부터 석유제품 할당량을 구매하는 마지막 날이었다. 한국전쟁이 발생한 1950년 6월 25일은 마침 일요일이라 다음날까지 마감일이 연장되었다. 진상태는 포항 지점으로부터 송금이 지연되어 25일 자정이 가까운 시간에 서울로 가기 위해 대구역으로 갔다. 그러나 평소 친분이 있는 대구역장으로부터 "북한괴뢰군"이 38선을 넘어와 지금 국군과 교전 중이라는 말을 "나지막한 목소리로" 듣고 그는 서울행을 포기하였다.[36]

한국전쟁 발생 직후 대구에는 전쟁과 관련된 "신통한" 보도가 없었다. 진상태는 6월 27일 가까스로 군 요직에 있는 사람을 통해 통화 허가증을 발부받아 대한석유저장회사 사무실로 전화를 걸었다. 그러나 아무도 전화를 받지 않았다. 다행히 스탠다드 바큠 판매과장의 집으로 전화를 걸어 통화할 수 있었다. 그는 판매과장으로부터 샌본 후임으로 온 지배인 해서(Hasser)의 경우 이미 본국으로 떠났고, 대한석유저장회사는 문을 닫았으며,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설명만 들을 수 있었다.[37]

한국전쟁 직후 서울을 점령한 북한군은 대한석유저장회사와 각 석유회사를 접수하였다. 당시 스탠다드 바큠에서 근무하고 있었던 이진우는 피난 가지 않고 서울에 머물렀다. 그에 따르면 북한군은 쓰리 시스터즈 각 사무실을 모두 접수한 다음 정동에 있는 쉘 사옥으로 쓰리 시스터즈와 대한석유저장회사 직원들을 소집시켜 각 회사의 장부를 정리시켰다고 한다. 이어 북한군은 쓰리 시스터즈와 대한석유저장회사를 통합하여 중앙연유

36) 진상태, 『석유인생 반세기』, 39~41쪽.
37) 진상태, 『석유인생 반세기』, 41~43쪽.

관리소(中央燃油管理所)를 설치하고, 서울에 있던 직원들을 매일 출근하게 하였다. 이진우 또한 중앙연유관리소로 출근하였지만, 별다르게 하는 일은 없었다고 한다.[38)]

한국전쟁 발생 직후 미 경제협조처(ECA) 원조 자금으로 한국에 공급되던 석유 제품은 모두 공급이 중단되었다. 미 극동군사령관(CINCFE)은 한국 영해에 있는 모든 선박들의 이동을 통제하고, 일본에 있는 유조선의 한국 이동도 중단시켰다. 또한 경제협조처에 한국 석유 프로그램을 즉시 중단하도록 요청하고, 석유회사 본사에 한국으로 가는 모든 석유 제품의 선적과 적재를 우회하고 취소할 것을 통지하였다. 한편 전시 상황에서 모든 석유 제품은 징발되었다. 주한미군사령부는 한국의 모든 석유 제품과 관련 시설에 대한 통제권을 장악했다.[39)]

진상태도 전쟁 발생 직후 부산으로 피난 갔다. 그는 스탠다드 부산대리점을 찾아갔으나 그곳 또한 휴업상태였다. 대한석유저장회사도 없어졌고, 상공부도 피난으로 이동하고 있어 모든 석유 관련 업무가 완전히 정지되었다. 그러던 중 군에 징발된 석유 제품에 대한 대금을 받으러 대구로 오라는 연락을 받기는 하였으나, 차편이 없어 떠나지 못하였다. 이후 진상태는 징발된 석유 제품 대금을 지불하겠다던 군 기관이 부산으로 이동해 왔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가 대금이 아닌 현물로 반환받았다. 징발된 석유 제품에 대해서는 대금 환불이 원칙이었으나, 당시 시장 가격이 공정가격보다 10배 이상 비쌌기 때문에 그는 사정사정하여 현물로 받았다.[40)]

한편, 1950년 11월 1일 한국 정부와 대한석유저장회사는 기존 「임대

38) 이진우, 『석유유통야사』, 90~93쪽.

39) "ECA Administrator to SCAP, Tokyo, June 30, 1950," "Bunce, Tokyo to ECA Administrator, July 4, 1950," "Bunce, Tokyo to ECA Administrator, July 27, 1950," Entry UD 422, Box 4, RG 469, NARA.

40) 진상태, 『석유인생 반세기』, 42~46쪽.

차 협정」을 비롯한 여타 석유 협정들을 잠정적으로 중단하고, 전시 상황을 반영하여 잠정 협정(Interim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Korea Oil Storage Company)을 체결하였다. 이 잠정 협정은 한반도에서 "평화로운 상황"이 재확립될 때까지 대한석유저장회사가 한국 민간에서 사용될 석유 제품을 배급하는 것에 대한 제반 사항을 한국 정부와 대한석유저장회사가 합의한 것이다.[41)]

1951년 초부터 민수용 석유 제품이 배급되기 시작하였다. 새해 아침 진상태는 갑자기 경북도청으로부터 부산에 가서 석유 제품을 인수해 오라는 통보를 받았다. 그러나 전쟁으로 자금이 바닥이 난 그에게는 "날벼락 같은" 것이었다. 그의 유일한 재산이었던 포항 지점은 저장 탱크, 창고, 사무실 할 것 없이 모두 전소되었고, 대구 창고의 재고는 거의 군에 징발되어 있어 현금화하지 못하였다. 대출을 받기 위해 대구 은행 지점에 찾아갔으나 금액이 커 지점장의 권한으로는 불가능하였다. 자금을 구하기 위해서는 서울로 갈 수밖에 없었으나 촉박한 시간에 차편을 구하기도 쉽지 않았다. 그의 능력은 또 발휘되었다. 그는 비행기를 타고 최대한 빨리 서울로 가기로 마음을 먹고 경찰국장에게 도움을 요청하였다. 경찰국장의 출입허가증을 가진 자는 비행장 출입이 허용되었기 때문이었다. 1·4후퇴 당일 그는 경찰국장의 도움을 받아 당시로는 엄두도 못 낼 비행기를 타고 서울로 갔다. 서울공항에 도착해서도 미군 지프차를 타고 목적지까지 이동했다. 피난 준비에 한창 바쁜 서울 S 은행에서 그는 후일 수속을 밟기로 하고 대출받은 후 부산으로 가서 간신히 석유 제품을 구매하였다. 그는 영국군인이 탄 열차 우편칸을 타고 럼주를 대접받으며 부산으로 갔다.[42)]

---

41) "Interim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Korea Oil Storage Company," Entry UD 1276, Box 5, RG 469, NARA. 이 협정은 1952년 4월 26일 한미경제조정협정의 내용을 미리 반영한 새로운 잠정 협정으로 대체되었다.

석유 제품을 구매하긴 했으나, 당장 현품으로 인도받기 어려웠고 주문한 전량을 인수받는 것도 불가능했다. 모든 석유 제품은 전선에 보내는 것이 우선이었기 때문에, 남는 제품만 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당시 인도받은 석유 제품은 경남대리점 3개 회사가 공동으로 소유한 영도 흥국창고에 일단 보관시켰다가 트럭으로 대구까지 수송하였다.[43] 한국으로 들어오는 석유 제품은 공급 또한 원활하지 않았다. 이진우에 의하면 한국전쟁 전에 쓰리 시스터즈에서 발주한 윤활유가 전쟁이 한창이던 1952년에야 한국에 들어와서 관계자들을 어리둥절하게 하기도 했다고 한다.[44]

전시 석유 제품을 구매하는 절차도 상당히 복잡했다. 이진우에 따르면 한국전쟁이 발생하자 석유 대리점은 전쟁 전에 사용하던 "출하지시서" 대신 13장의 "이슈 슬립(Issue Slip, 불출증)"으로 석유 제품을 구매했다고 한다. 당시에는 복사기가 없었기 때문에 13장의 서류를 만드는 것 자체가 쉽지 않았다. 13장의 서류에는 일일이 대한석유저장회사 지배인의 사인을 받아야만 했다. 그 후에는 외자청 청사에 있는 한국민사원조처(KCAC)에 가서 이 13장의 서류에 미국인 책임자의 서명을 받고, 그 다음에는 미군유류보급창에 가서 책임자의 서명을 받은 후, 마지막으로 출하 터미널로 가서 책임자의 서명을 받아야 했다. 이진우는 아침에 대한석유저장회사에 가서 이슈 슬립을 발행받아 한국민사원조처로 가서 서명을 받는 데만 하루가 걸렸고, 다음날 미군유류보급창에 가서 오전에 서류를 맡기면 오후에나 서명을 받을 수 있었다고 한다. 그리고 터미널로 가서 서명을 받는데도 하루가 걸렸다고 한다. 또한 모든 종류의 석유 제품이 한군데서 출하되는 것이 아니라 유종에 따라 달랐고, 각 종류의 석유 제품마다 이슈 슬립을 만들어야 했기 때문에 석유 제품을 구매하는 것은 대단한 고역이었다

42) 진상태, 『석유인생 반세기』, 52~56쪽.
43) 진상태, 『석유인생 반세기』, 57쪽.
44) 이진우, 『석유유통야사』, 99쪽.

고 한다.[45]

석유 드럼통을 관리하는 것도 쉽지 않았다. 빈 드럼통은 좋은 철판 재료였기 때문에 가격도 높아 분실되지 않도록 특별히 관리해야 했다. 전쟁 발생 전에는 대리점이 대한석유저장회사에 드럼통 가격을 예치하고 석유 제품을 인수하였으나, 전시에는 빈 드럼통을 반납하지 않으면 석유 제품을 구매할 수 없었다.[46] 석유 대리점은 회수장에서 빈 드럼통을 몇 개를 반납했다는 전표로 "게이트 패스(gate pass, 통행증)"를 받아 미군 석유터미널 사무실로 가져가 빈 드럼통 반납 확인서를 발급받은 후에야 석유 제품을 인수할 수 있었다. 드럼통을 관리하던 미군은 자기 마음대로 빈 드럼통 상태를 결정하여 폐기하기도 했기 때문에 이로 인한 시비도 적지 않게 발생했다고 한다. 이진우는 미군이나 대리점 모두 전시 드럼통 관리가 늘 골칫거리였다고 언급하였다.[47]

한국전쟁 당시 전국의 석유 대리점들은 부산에 다 모였다. 유엔민간원조사령부(UNCACK)가 부산 석유터미널에서만 석유 제품을 배급하였기 때문이었다. 진상태의 영남석유상사를 포함한 스탠다드 석유회사 소속 경북 지역 대리점도 부산 사십계단 아래에 있는 동양호텔에서 방 한 곳에 투숙하며 이곳을 임시 사무소로 사용하였다. 당시 이진우가 근무한 한국미유의 부산 임시 사무소에는 부산에 피난 온 대한석유협회와 조선미유가 임시 거처를 마련하기도 하였다.[48]

석유 대리점들은 부산에서 제품을 사서 그들의 도에 보내 배급하기에

45) 이진우, 『석유유통야사』, 103~104쪽.

46) 미군정기 때에도 석유 제품을 반납해야 석유 제품을 구매할 수 있었다. 당시에도 빈 드럼통 분실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여, 석유배급회사는 1947년부터 드럼통에 부과된 보증금을 올리는 등의 조치를 취하기도 하였다. "1947 PDA Report."

47) 이진우, 『석유유통야사』, 105~106쪽.

48) 한국석유유통협회, 『석유유통 50년사』, 152쪽; 이진우, 『석유유통야사』, 99~100쪽; 진상태, 『석유인생 반세기』, 58쪽.

분주했다. 석유 제품 배급량은 항상 부족했기 때문에 배급을 받을 사람은 석유 대리점을 찾으러 다녀야 했다. 진상태는 그들이 만일 우리가 있는 곳을 모르면 요즘 경찰이 범인 찾듯이 찾아다녔다고 표현하였다. 당시 석유상들의 위치는 실로 "으시댈만한" 전성기였다. 진상태의 기억에 전시 부산은 밤이 되면 부둣가에 정박해 있는 배들의 불빛이 불야성을 이뤄 휘황찬란하였고, 환락가와 홍등가는 밤이 새도록 흥청거렸다. 광복동 거리는 날이 새면 인파로 가득 메워졌다. 그는 부산에 있으면서 전쟁을 치르는 긴박감은 좀처럼 느껴지지 않았고, 이완감까지 주었다고 회상하였다.[49]

한국전쟁 당시 인플레는 진정될 기미가 없었다. 덩달아 달러의 교환율도 계속 올랐다. 석유 제품 가격은 달러로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교환율이 오르면 석유 제품 가격 또한 환산되어 올랐다. 재고가 많을수록 이익을 보았기 때문에 석유 대리점에서는 될 수 있는 대로 많이 구입하려고 했다. 이진우에 의하면 전시 윤활유 사용이 활발해 지면서 수복 후에는 윤활유 한 드럼만 판매해도 "양복 한 벌 값이 떨어진다"고 할 정도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진상태의 영어 실력은 마치 "도깨비 방망이"와 같은 위력을 발휘하였다. 진상태는 당시 대한석유저장회사 지배인이었던 핸더슨(Handerson)을 끈질기게 찾아가 S 은행과 J 은행의 대한석유저장회사 예금 유치를 성사시키고, 그 대가로 두 은행으로부터 거액의 자금을 대출받아 석유 제품을 다량 구입하였다. 이 소문은 은행가에 퍼졌고, J 은행과 대한석유저장회사 간의 거래도 그의 끈질긴 노력으로 핸더슨을 설득해 성사시켰다. 은행가에서 그는 "일류 외교관"이었다.[50]

당시 철도 수송과 전화전신 등 체신부 사무는 전시 동원으로 인해 일반 민간에서는 쉽게 사용할 수 없었다. 석유 대리점 또한 마찬가지였다.

49) 진상태, 『석유인생 반세기』, 58쪽, 61~62쪽.
50) 이진우, 『석유유통야사』, 99쪽; 진상태, 『석유인생 반세기』, 62~64쪽.

이진우는 한국전쟁 당시 기차 수는 한정되어 있고, 전시 상황에서 군수물자 수송에 우선권을 주었기 때문에 석유 대리점이 기차 배정을 받는 것은 "전쟁을 방불케 할 정도로 힘든 일"이었다고 진술하였다.[51] 그러나 영어를 할 줄 아는 진상태는 부산역 수송연락사무소 미국인 소장을 설득해 대구까지 무료로 석유 제품을 운반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는 또한 인맥을 동원해 철도화물사령 전화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여기에 더해 여러 은행으로부터 석유 구입 자금도 충분히 지원받았고, 달러 환율이 오를 때마다 차액 이익을 보았다. 1951년 석유 배급이 시작된 후부터 그는 전쟁으로 입은 피해를 보충하는 정도를 넘어서 상당한 부를 축적하였다. 그는 평소에 친분이 있던 국회의원 S가 배급은 받았으나 돈이 없어 구입하지 못하는 지프차를 대신 구매하여 타고 다닐 정도였다. 또한 전시 기차를 타려면 미군수송대의 허가를 받아야 했으나 그는 S 의원의 명의로 병원 열차를 자유롭게 타고 다녔다. 그의 표현대로 하자면 "전쟁과는 동떨어진 행복한 사업을 한 셈이었다." 진상태는 1951년 11월 경 대구로 복귀하였는데, "개선장군"처럼 돌아왔다고 회상하였다.[52]

그러나 그는 1953년 가을 부당 영업 행위로 석유 대리점 허가가 취소되었다. 구룡포, 간포, 영일 등 어업조합에 중유를 배급 전표 없이 공정가격보다 비싸게 팔아 막대한 부당 이익을 보았다는 혐의였다.[53] 그는 석유 대리점 허가를 받지 못한 석유상들의 "정치적 쇼"에 희생된 것이라 판단하였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공부와 대한석유저장회사 등 백방으로 뛰어다니며 결백함을 주장하였으나 결국 그는 이 일로 인해 잠시 석유 유통업계를 떠나게 되었다. 이후 그는 재기하여 삼미상사를 설립하고 1957

51) 이진우, 『석유유통야사』, 101~102쪽.
52) 진상태, 『석유인생 반세기』, 58~60쪽, 65~67쪽.
53) 영남석유상사는 1952년 4월 석유 드럼 부정 처분 문제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은 적도 있다. 「영남석유상사, 부정사실탄로」, 『동아일보』 1952년 4월 24일자.

년 대한석유저장회사 서울 경기 대리점 운영권을 획득하여 석유 유통업계로 다시 진출하였다.[54)]

V. 맺음말

지난 반세기 석유 유통업에 종사한 진상태의 자서전에 담긴 그의 경험과 기억은 한국전쟁 발생을 전후한 시기 한국 석유와 관련된 자료와 연구가 상당히 빈약한 상황에서 당시 한국의 석유 유통 상황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정보를 제공해 준다. 그의 자서전은 또한 당시 소자본가가 형성되는 과정의 한 단면을 엿볼 수 있다는 측면에서도 중요한 의미가 있다.

우선 한국전쟁 발생을 전후한 시기 그의 경험과 기억은 당시 쓰리 시스터즈와 석유 판매상이 상호관계를 맺는 방식을 생생히 보여준다. 쓰리 시스터즈는 한국 정부 수립 직후 석유 유통 체계가 확립되는 과정에서 절대적 권한을 행사하였다. 이를 최종적으로 인가할 수 있는 정부의 권한은 사실상 증발되었다. 문제는 한 국가의 중요한 에너지 자원인 석유의 유통이 이에 대한 전문 지식이나 경험보다 외국인 개인의 친분 관계로 결정되었다는 점이다. 이는 미국의 원조에 의존한 한국 자본주의의 출발에 내재된 실상이 단적으로 드러난 모습이라 할 수 있다.

다음으로 그의 자서전은 한국 정부 수립 후 소자본가 형성 과정의 한 단면을 여실히 보여준다. 그가 석유 대리점 운영권을 획득하고 운영하면서 행한 수많은 로비 활동과 비정상적으로 보이는 영업 방식은 어찌 보면 법적 감수성이 상실된 시대의 자본가가 형성되는 상징적인 모습이 될 수

54) 진상태, 『석유인생 반세기』, 72~77쪽.

있을 것이다. 또한 그와 기존 석유상들의 마찰은 냉전 체제 하 구 자본가와 신 자본가 간의 갈등을 보여주는 일례로도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그의 자서전에 나타난 친분과 인맥 관계를 중심으로 한 한국 석유 유통 구조는 한국전쟁 시기에도 그대로 이어졌다. 전시 부족한 석유 물자를 두고 무엇보다 이윤을 얻는 것이 중요했기 때문이다. 그의 경험과 기억은 이를 잘 보여주고 있다. 전쟁 이전 석유상들 간의 갈등 관계는 결국 극단으로 치달았다. 한국전쟁 당시 그들은 그들만의 전쟁을 치렀다.

(2023.03.09. 투고 / 2023.04.07. 심사완료 / 2023.04.11. 게재확정)

[Abstract]

A Korean Oil Dealer's Experience and Memory before and after the Outbreak of the Korean War

Ohsoo Kwon

This article examined a microscopic aspect of Korean oil history before and after the outbreak of the Korean War, based on an autobiography left by an oil dealer. In this autobiography, his experiences and memories of working in the oil distribution industry are contained entirely in the flow of modern Korean history. In particular, the process of his entry into the oil industry after the establishment of the Korean government, the domestic oil distribution situation during the Korean War, and the process of revoking and reviving the oil agency's license are clearly described without filtration. His experiences and memories provide important information for understanding the oil situation in Korea at the time when data and research related to Korean oil before and after the Korean War were quite poor.

☐ Keyword

Korean War, Oil Dealer, Oil Distribution, Three Sisters, KOSCO

[참고문헌]

NARA 소장 자료
RG 469, Entry UD 1276, Box 5
RG 469, Entry UD 422, Box 4
RG 554, Entry A1 1256, Box 23

『동아일보』, 『영남일보』.

경북광유, 『경북광유 80년사』, 경북광유, 2007.
권오수, 「1949년 '대한민국 및 대한석유저장회사 간의 협정' 분석」, 『세계역사와 문화연구』 64, 2022.
권오수, 「1945~1949년 미국의 대한석유정책과 한미석유협정 체결」, 동국대학교 대학원 사학과 박사학위논문, 2020.
권오수, 「1945-1948년 미군의 대한 석유 정책과 "쓰리 시스터즈(Three Sisters)"」, 『미국사연구』 47, 2018.
권오수, 「미군정기 미군의 석유 운영과 석유배급회사의 활동」, 『역사와교육』 33, 2021.
金用武·吳裕錫, 『人間 石庵』, 文榮社, 1968.
대한석유협회, 『석유산업의 발전사』, 대한석유협회 홍보실, 1990.
대한석유협회, 『석유의 이해』, 대한석유협회 홍보실, 1989.
여영섭, 『석유 135년, 이 땅에서의 기록』, 지식과 감성, 2015.
이진우, 『석유유통야사』, 에너지미디어, 2015.
진상태, 『석유인생 반세기』, 도서출판 영인, 2001.
한국석유유통협회, 『석유유통 50년사』, 한국석유유통협회 50년사 편찬팀, 2006.

Irvine H. Anderson Jr., *The Standard-Vacuum Oil Company and United States East Asian Policy, 1933-1941*,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75.

M. S. Vassiliou, *Historical Dictionary of the Petroleum Industry*, Lanham: The Scarecrow Press, Inc., 2009.

Ohsoo Kwon, "Machinations from on High: U.S. Aid Plan and Oil in South Korea," *Diplomatic History*, Vol. 46, No. 1, 2022.